

# 유럽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전쟁

정재윤(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 I. 들어가는 글

외국교과서에 기술된 한국관련 내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한국전쟁이다. 한국전쟁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한국의” 전쟁이었지만 동시에 “세계적인” 전쟁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국전쟁은 한국에서 바라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에 대한 외국의 시각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 또한 의미있는 일이다. 이 글은 외국에서 한국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교과서를 통하여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교과서는 특정 국가의 공식적인 이념 및 추구하는 바가 투영된 중요한 매체 중의 하나이다. 교과서에는 다양한 관점을 지닌 저자, 편집자, 출판사들이 세계를 보는 관점, 지식에 대한 정의, 그 지식이 발휘되는 권력 등에 대한 이해가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개입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교과서가 다양한 집단 문화의 지식을 담고 있으며, 그 문화들은 다시 다수의 숨겨진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sup>1)</sup>.

이 글에서 냉전시대 동서의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발발했던 한국전쟁이 외국 교과서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sup>2)</sup> 여기서 외국교과서의 범위를 유럽지역 사회과 교과서로 한정하고 유럽 8개국, 사회과 교과서 21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각 국가마다 상이한 교과서 출판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교과서에서 한국전쟁을 다루고 있는 형식은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한국전쟁 발발에서부터 휴전협정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각각의 교과서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서술방식은 유사한 반면 내용면에서는 다소 상반된 견해가 나타난다. 한국전쟁의 발발, 전쟁의 경과 그리고 전쟁의 결과와 영향, 세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전쟁의 내용과 시각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II. 유럽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전쟁

유럽 지역 교과서에서 한국전쟁은 지리교과서와 역사교과서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다. 지리 교과서의 경우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에서 남한을 소개할 때 한국전쟁

1) 강선주, 2004, 「미국의 세계사 교과서 내용 분석」, 『사회과 교육』, 제43호, 2권, p. 139.

2) 이 글의 내용이 분석적이어서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원고인 만큼 분석의 깊이보다는 내용을 제시하는데 무게를 두었음을 밝힌다.

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역사교과서에서 한국전쟁을 찾아볼 수 있다. 현대사 교과서에서 한국전쟁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 한국전쟁에 대하여 소략하게 다룬 교과서라고 할지라도 한국전쟁은 주요 사건 중의 하나로 언급된다. 유럽지역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전쟁 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전쟁은 냉전시대에 동서의 갈등을 최고조로 달하게 하였던 사건 중의 하나이며 한국전쟁을 계기로 냉전시대가 고착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1. 한국전쟁의 배경과 발발 원인

한국전쟁은 냉전 시대의 ‘국제관계’, ‘긴장과 긴장완화’ 또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정책’ 등의 제목 아래에 ‘한국전쟁’이라고 독립된 절로 구성되어 기술되거나 또는 제시된 제목 하에서 주요 사건 중의 하나로 나타난다. 한국전쟁은 ‘1950년’ 전쟁 발발 시점 또는 ‘1945년’ 일본 식민지배로부터의 독립, 남북의 분단에서부터 한국전쟁 발발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이 주가 되어 서술된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원인에 대한 기술에서는 교과서마다 서술 관점을 달리한다.

- 최근 한 진술에 의하면 한반도 충돌에서 결정적인 역할은 스탈린이 하였다.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전쟁을 시작할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논의는 ‘평화로운 기수(즉, 스탈린)’의 확실한 만족을 위하여, 개인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 김일성이 솔선한 것이라고 한다. <폴란드 교과서><sup>3)</sup>
- 언제나 전쟁을 선동한 것에 조심하고 있던 소련은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군수 물자를 보냈다. <덴마크 교과서><sup>4)</sup>

한국전쟁은 김일성이 수행한 것이나 스탈린의 선동과 강요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정책의 일환이었다는 전통주의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전쟁은 처음부터 김일성의 의지로 시작되었고 김일성이 스탈린을 설득하여 개전 동의를 이끌어낸 결과로 전쟁이 발발하였다는 시각이 있다.

- 김일성은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으며 자신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공산주의 세계의 우두머리인 스탈린의 지원을 얻기를 원했다. 남한을 이기는 것은 수 일 또는 수 주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에게 설득시켰다. 결국 스탈린은 침공에 동의했지만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김일성에게 제공하는 것은 거절하였다. 사실 소련은 소련군이 아직 전쟁에 참가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칫 미국과의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두려워했다. <체코 교과서><sup>5)</sup>

3) Antoni Czubiński 외, Historia powszechna 1939-1997, Wydawnictwo Naukowe UAM, 2004, p. 244.

4) Paul Harrison, Den Kolde Krig, Hvordan Skete Det ?, Flachs, 2005, p. 15.

- (흐루시초프가 회고하다, 1971년에서)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재차 숙고하고 앞뒤를 계산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시 오라고 설득했다. 김일성은 돌아갔다가 모든 상황을 강구해서 돌아왔다. 그는 스탈린에게 성공을 확신한다고 말했지만 스탈린은 이를 미심쩍어 했다고 기억된다. ... (중략)...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전쟁은 스탈린의 생각이 아니라 김일성의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스탈린이 김일성을 저지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영국 교과서>6).

위의 기술은 김일성의 개전 의지가 한국전쟁을 일으킨 원인이 되었다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스탈린은 김일성의 개전 의지를 꺾지 않았지만 그는 한국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따라서 한국전쟁의 원인은 김일성의 단독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 지역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전쟁의 배경과 발발원인에 대한 가장 지배적인 기술은 다음과 같다.

- 김일성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을 재통일하겠다는 의도로 1950년에 남쪽을 공격했다. <영국 교과서>7)
- 1950년 6월 25일 중공의 지지에 힘입은 북한군들이 38선을 넘어와 수도 서울에 도달했으며... <이탈리아 교과서>8)
- 1950년 여름 북쪽의 뜻밖의 기습은 소련의 병력지원은 없었으나 스탈린의 동의를 얻어서 이뤄졌다. <독일 교과서>9)
- 김일성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승인을 얻어 남쪽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러시아 교과서>10)
-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스탈린과 마오의 격려를 받으며 남한을 침공한다. <프랑스 교과서>11).
- 스탈린은 나라의 전체 영토를 자신의 통제 하에 장악하려고 노력하는 김일성에게 지지를 보냈다. 소비에트 무기로 무장된 북한군이 남한의 영토를 침범하여...<러시아

5) Petr Luňák 외, Dějiny Moderní Doby - 2. Díl, Albra, spol. s r. o. redakce SPL-PRÁCE, 2004, p. 18.

6) J. F. Aylett & Neil Demarco, The Cold War and After, Hodder Murray, 2005, p. 21.

7) Richard Overy 외, Complete History of the world, Times Books, 2004, p. 195.

8) Antonio Brancati, Storia di popoli e di civiltà 3, La Nuova Italia, 2002, p. 258.

9) Jürgen Weber 외, Vom zweiten weltkrieg bis zur gegenwart, C.C.Buchner, 2002, p. 308.

10) Н.В.Загладин,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И МИР В XX ВЕКЕ 11, Русское слово, 2005, p. 276.

11) Guillaume Le Quintec 외, Histoire, Nathan, 2004, p. 96.

교과서>12)

한국전쟁은 김일성에 의해 발발한 것이었으나 소련과 중국의 지원 없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따라서 김일성의 개전의지와 소련과 중국의 지지가 결합되어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는 시각이다. 이외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과 배경을 서술하여 한국전쟁 발발 원인을 우회적으로 기술한 교과서도 있다.

- 사실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시점에 또다시 다른 전쟁에 개입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만약 김일성이 소련의 지원으로 받아 남한을 정복한다면 이는 분명 소련에 이득이 될 것이었다. …(중략)… 공산세계의 또 다른 주요 인물인 마오쩌둥도 김일성의 침공계획에 전폭적인 지원을 보낼 수는 없었다. …(중략)… 이는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모스크바가 김일성의 침략을 사주했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김일성이 독자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북한이 38선을 넘은 것은 소련의 팽창주의를 보여주는 명백한 실례라고 해석하였다. <영국 교과서>13)
- 소련의 역할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중략)… 북한 정부의 소비에트로부터의 독립성을 감안해볼 때 북한이 모스크바의 승낙없이 그런 모험을 감행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스탈린 그리고 마오쩌둥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서 공격에 대한 결정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공산이 크다. 알다시피 미국은 중국의 내전에도 개입하지 않았다. <덴마크 교과서>14)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38선 설정과 한국분단, 양국의 대한정책·점령정책의 결과물이었다<sup>15)</sup>. 중국의 공산화와 미국철수 등의 국제적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김일성은 스탈린의 동의와 지원 그리고 마오쩌둥의 동의를 얻어 전쟁의 발발을 주도했다. 따라서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국제적 상황인 북한·중국·소련의 관계에서 왔다고 할 수 있다<sup>16)</sup>.

한국전쟁의 발발에 있어 소련과 중국의 개입 여부 및 개입 정도에 대해서 교과서 간의 상반된 시각이 있지만 한국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전쟁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에 나타난 한국전쟁에 대한 서술이다.

- 의견이 분분한 남한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군이 남한측의 도발이 없었는데도 불구하

12) O.V.Волобуев 외, РОССИЯ И МИР 11, ДРОФА, 2005, p. 189.

13) Oliver Edwards, The USA and the Cold War, 1945-63, Hodder Murray, 2002, p. 69.

14) Carl-John Bryld 외, DEN NYE VERDEN 1945-2000, Systime, 2005, p. 33.

15) 정병준, 『한국전쟁-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2006, pp. 86-87.

16) 이완범, 2006, 「(서평) 한국전쟁 발발 직전의 상황: 내전결과 남침유도설에 대한 비판적 조망」, 『역사와 현실』, 제62호, p. 383.

고 소련군 무기로 무장하고 남한을 공격했고, …(중략)… 안보리는 북한의 공격성에 책임을 덮어 씌웠다. <독일 교과서>17)

위의 기술과 달리 현재 북침을 주장하는 연구자는 거의 없으며 남한의 도발에 따른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는 정도이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소련을 비롯한 구공산국가로부터 공개된 자료들은 한국전쟁에 관한 스탈린의 적극적인 역할을 역사적 사실로서 확인하였다. 또한 마오쩌둥의 깊은 개입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18).

## 2. 한국전쟁의 전개양상

한국전쟁의 전개 양상에 대한 기술은 전쟁 당시 남북한의 최대진격지역 및 유엔군과 중국군의 개입 그리고 휴전협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거나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지도와 함께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전쟁 전개 양상을 설명하면서 보다 비중있게 기술하고 있는 점은 한국전쟁을 둘러싸고 수행되었던 미국의 정책과 냉전시대의 국제 정세이다.

### • 미국의 전쟁?

1. 군대를 보낸 16개의 나라 중에서 미국은 보병의 50퍼센트와 공군의 93퍼센트, 해군력의 86퍼센트를 제공했다.
2. 유엔은 미국에게 군사작전을 지휘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었다.
3. 유엔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맥아더 장군을 유엔군 담당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맥아더는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그에게 명령을 받았다.
4. 전쟁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 될 정도로 위협적이었다. 미국은 심지어 중국에 대항하여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고려하였다. <영국 교과서>19)

• 당초 미국의 결정은 한국에서 국지전(a limited war)을 치르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국지전이란 충돌을 한국이라는 한 나라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게 한정시키고 그 속에서 남한의 독립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영국 교과서>20)

• (한국)전쟁에의 무력 개입은 유엔의 지지로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의 시도였다. <영국 교과서>21)

• 강대국들은 직접 맞서 “열전”을 벌이는 것을 피했다. 대신 그들은 그들의 갈등을 소

17) Dorothea Beck 외, Zeit für Geschichte, Schroedel, 2003, p. 149.

18) 전상인, 2000, 「커밍스의 한국전쟁 연구과 한국정치학」, 『사회과학논평』, 제19호, p. 166.

19) James Mason, Modern World History to GCSE,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 62.

20) Oliver Edwards, The USA and the Cold War, 1945-63, Hodder Murray, 2002, p. 70.

21) Alan Scadding 외, Revise GCSE History, Modern British and World, Letts Educational, 2005, p. 88.

위 “대리전쟁” 형태로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풀었다. 한국전쟁 또한 그렇다. 북한은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았고 남한은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 <독일 교과서><sup>22)</sup>

한국전쟁은 ‘미국에 의해’ 주도된 전쟁이며 남한과 북한 각각 미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일어난 ‘대리전쟁’으로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전쟁 서술에서 정작 한국의 국내적 상황에 대한 서술은 배제된 경우가 많은데 다음은 한국에 대하여 언급된 내용이다.

- 한국전쟁은 국지전이긴 하나 큰 희생을 초래한 전쟁이었다: 전투에서 사망한 미군은 33,629명에 달했고 남한은 415,000명, 유엔연합군은 3,000명이 사망했다. 반면에 공산주의 진영의 전체 사상자는 2,000,000명으로 추정된다. <영국 교과서><sup>23)</sup>

- 한국전쟁의 희생은 컸다. 4,000,000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 여기에는 54,000명의 미군과 약 7,000명의 영국연방군이 포함되어있다. 주택을 포함하여 한국 전역이 파괴되었다.<영국 교과서><sup>24)</sup>

- 한국전쟁으로 북한은 2,500,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중국은 약 1,000,000명, 남한은 1,500,000명, 미국은 140,000명(사망자 34,000명과 부상자 103,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러시아 교과서><sup>25)</sup>

- 피카소 그림 ‘한국에서의 학살’ <독일, 프랑스 교과서><sup>26)</sup>

전쟁에 의한 인적 피해의 정도는 전쟁 기간, 전쟁 규모, 전쟁 지역의 범위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달리 나타나는데 한국전쟁의 경우 또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예에 해당된다. 한국전쟁에 의한 인적 피해 정도는 각종 통계 자료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는데<sup>27)</sup> 위에 제시된 희생자들의 수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노근리양민 학살사건을 주제로 그린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은 한국전쟁에서 민간인의 피해와 한국민이 겪었던 역사적 상처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준다.

### 3. 한국전쟁의 결과 및 영향

---

22) Brigitte Bayer 외, Geschichte plus 10, VOLK VON WISSEN, 2003, p. 39.

23) Oliver Edwards, The USA and the Cold War, 1945-63, Hodder Murray, 2002, p. 74.

24) J. F. Aylett & Neil Demarco, The Cold War and After, Hodder Murray, 2005, p. 22.

25) Н. В. Загладин,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И МИР В XX ВЕКЕ 11, Русское слово, 2005, p. 277.

26) Anton Golecki, Geschichte der USA, C. C. Buchner, 2003, p. 103.

Bernard Klein 외, Histoire Géographie, Bordas, 1998, p. 171.

27) 백종천·윤정원, 1991, 「6·25전쟁에 대한 연구」, 『국사관 논총』, 제28집, 국사편찬위원회, p. 139.

앞에 나온 1장과 2장에서 기술된 내용이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한 사실적 기술이었다면 이 장에서 살펴볼 '한국전쟁의 결과 및 영향'에 대한 기술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해석적 시각이 담겨있는 부분이다. 한국전쟁의 결과 각 국에 미친 영향이 상이했을 것이고 전후 결과와 영향에 대해서 각 국 또는 각 교과서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 한국전쟁으로 미국의 정책은 가속도가 붙었지만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나토의 강화, 서독의 주권회복과 재무장, 일본의 평화조약, 동남아시아의 반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경제원조의 확대, 태평양 평화조약과 같은 많은 조치들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던 사항들이었다. 단지 한국전쟁이 발발함으로써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되었을 뿐이다. <영국 교과서><sup>28)</sup>
- 1950년 여름에 미국의 영향권에 속하는 남한에 대한 공산주의의 북한군의 기습은 서방 세계가 안보정책상 새로운 방향설정을 하도록 부추겼다. (이 사건으로) 소련의 세계 정복에 대한 모든 우려가 옳았음이 증명된 것 같았다. <독일 교과서><sup>29)</sup>
- 일본은 미국의 군사주문품의 수행으로 대단한 소득을 얻었다. <러시아 교과서><sup>30)</sup>
-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일기 시작한 세계무역의 붐은 독일산 제품 (기계제작, 자동차, 전기 및 화학생산물) 수출을 장려했다. <독일 교과서><sup>31)</sup>
- 한국전쟁으로 인해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상당히 감축된 군사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중략)… 양 블록 간에 이루어진 군비확장경쟁은 완전히 다른 경제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군대를 위한 여러 가지 물품의 주문이 확대되면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경제에 유익한 영향을 미쳤지만,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경제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다. 결국에는 1953년 6월 동베를린이나 1956년 포즈난에서 노동자 시위가 발발하게 되었다. …(중략)… 한국전쟁 당시 일본이 남한에 있는 미군을 경제적으로 지원한 것은 결국 일본 경제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폴란드 교과서><sup>32)</sup>

한국전쟁 결과 미국의 안보 정책은 강화되어 군사력을 증강시켰고 냉전세계는 고착화되었다. 또한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독일과 일본이 경제적 특수를 누렸고 한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또한 변화하였다.

28) Oliver Edwards, *The USA and the Cold War, 1945-63*, Hodder Murray, 2002, p. 70.

29) Jürgen Weber 외, *Vom der teilung zur einheit*, C. C. Buchner, 2003, p. 76.

30) Н.В.Загладин,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И МИР В XX ВЕКЕ 11*, Русское слово, 2005, p. 220.

31) Bernhard Pfändner, *Deutschland zwischen diktatur and demokratie weltpolitik im 20. Jahrhundert*, C. C. Buchner, 2002, p. 219.

32) W Łazuga, *Dzieje nowożytne i najnowsze (1815-1939)*, Grafpunkt, 출판연도 없음, p. 246.

### Ⅲ. 나오는 글

지금까지 유럽 사회과 교과서에 한국전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교과서에서 한국전쟁은 ‘전쟁의 배경과 발발 원인’, ‘전개 양상’, ‘결과 및 영향’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냉전 시대의 주요 사건으로 기술된다. 각각의 교과서에서 한국전쟁 발발 원인은 스탈린의 정책으로 인한 것, 김일성의 의지, 북한을 지지한 소련과 중국의 동의에 의한 것 등의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의 결과로 인하여 미국이 안보정책을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하게 되었다는 관점과 한국전쟁 때문에 미국의 정책이 앞당겨 시행된 것이긴 하지만 한국전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새로운 방향이 설정된 것은 아니라고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쟁이며 전쟁에 참전한 병력 규모와 작전 권한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주도하에 수행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 교과서에서 한국전쟁은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시대의 대립 환경과 국제관계에 무게를 두어 서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각은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한국전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한국’전쟁이었으나 국내적 상황에 대한 서술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유럽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전쟁, 나아가 한국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할 수 있다.

교과서는 다른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수단이지만,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기 이전에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 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을 뜻한다. 따라서 교과서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지식 즉,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정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집단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활동을 지지하도록 한다. 그러한 지식과 정보는 사람들의 의식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한계를 설정하고 이러한 한계는 바로 사회 통제와 지배의 기초가 된다.<sup>33)</sup> 이는 교과서 자율출판제도를 따르는 국가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다. 교과서 자율출판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할지라도 교과서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은 있기 마련이고 이것은 교과서 구성 및 서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을 들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역사교과서의 집필, 발간, 판매는 전적으로 자유시장경제에 맡겨져 있으며 교과서의 선택권은 개별 학교의 교사에게 주어져 있으나 이보다 우선하여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준수해야한다<sup>34)</sup>. 따라서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은 해당 국가가 인정한 지식이며, 이것으로 학습한 세대는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특정 대상에 대한 집단 기억을 형성하는데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할 수 있다.

33) Anyon, J., 1979, 「Ideology and United States History Textbooks」, 『Harvard Educational Review』, Vol. 49, No. 3, August. ‘이혜영, 1988, 「교과서와 이데올로기」, 『교과서와 이데올로기』, 도서출판 천지, p. 91’에서 재인용.

34) 김중락, 2003, 「영국의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와 아일랜드 문제」, 『서양사론』, 제78호, p. 240-243.